

# 손학규 추인 거부...호남기반 3당 합당 좌초 위기

孫 "구태 회귀 안된다" 비토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  
3당 의원 교섭단체 우선 구성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비토에 17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3당 의원들은 일단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통합 행보에 나서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확정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8일 의총을 열어 탈당을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손 대표에 대한 최후 압박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선거 편의를 위한 지역주의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합의문 추진은 신중한 문제이고, 폭넓은 국민·당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오늘 최고위에서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이날까지 합당기로 한 사흘전 3당 간 합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통합 합의문에 현 대표 3인으로 구성되는 공동 지도부의 임기를 오는 28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당헌 부칙에 담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대표가 3당 통합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 추진 거부도 자신의 대표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몸'이자 '노'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손 대표의 통합 합의 추진 거부로 3당 간 통합 협의회는 타격을 입었다. 손 대표가 3당 통합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 추진 거부도 자신의 대표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몸'이자 '노'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교섭단체 명칭은 '민주 통합 의원 모임'으로 정했다고 장정숙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3당 통합 협상에 참여한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정숙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에 이름은 올린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주승용·임재훈·최도자·이배·최도자·이상돈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전정배·박지원·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종화·장정숙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황주홍·김광수·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우주 의원 등이다.

장정숙 의원은 "당적이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에 대한 의원총회가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17석이며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제명을 원하는 안철수계 비례의원 5명에 더해 추가 제명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으면 모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친(親) 손학규' 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의원총회에서의 비례대표 제명은 큰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바른미래당은 의원 한 명 없는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반면, 손 대표 측은 "당헌·당규에 적시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셀프 제명은 무효가 될 것"이라며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가운데 통합 추진 진영 일각에서는 손 대표를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의원은 "막전막후에서 긴밀한 대화가 펼쳐지고 있다"며 "내일(18일) 아침은 되어야 (손 대표 거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현역 20% 교체 공식화... 전략공천 4명 확정 불출마 지역 제외하면 한자릿수 물갈이에 그칠 듯

광주·전남 전략공천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에서 현역 의원 20%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에 이날 연 전 총리, 경남 양산에 김두관 의원, 경기 남양주에 김용민 변호사, 경기 고양에 홍정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지역구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현역 교체 목표를 밝혔다. 현역 의원 129명 중 26명(20%)은 공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추가 심사를 통해 경선이 확

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계열인 문화상 국회의장, 손혜원 의원 등 2명도 포함된 수차례 실제 총선 후보 신청자 중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은 한 자릿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지난 15일 경기 과천·의왕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지역의 현역인 신창현 의원을 사실상 제외시켰다.

광주 서구갑(송갑석) 등 현역 의원 지역구 중 단수신정 지역으로 추가공모가 예고된 곳은 전략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양·함평·영광·장성(이계호), 영암·무안·신안(서삼석) 등 단수신정 지역이 아닌데도 아직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은 18곳이다.

이 중에는 추가 심사를 통해 경선이 확

정될 지역도 있고,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분구나 합구될 가능성을 고려해 결론이 마지막까지 미뤄지는 지역도 있다. 또, 다른 후보와의 현역 차이로 단수 공천이 결정되는 지역도 있었지만, 전략지역으로 지정돼 컷오프를 당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도 중한)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4명의 전략공천 후보를 결정했다. 전략공천위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대결을 벌이는 이날 전 총리를 전략공천으로 확정할 것은 당 차원에서 이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전략공천 확정자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오늘 의총 비례대표 셀프제명...바른미래 孫 혼자 남나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제명 안건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제명 조치는 바른미래당에 몸이 묶인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둬줄 해결책 주는 성격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7일 "3당 통합안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안 될 경우 내일 본회의 이후 의총을 열어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당권파 회동에는 김동철·

박주선·주승용·임재훈·최도자·이배·최도자·이상돈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전정배·박지원·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종화·장정숙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황주홍·김광수·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우주 의원 등이다.

박주선·주승용·임재훈·최도자·이배·최도자·이상돈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전정배·박지원·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종화·장정숙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황주홍·김광수·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우주 의원 등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당 통합을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을 의결했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정의·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춰 국민의당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종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형이 우려된다.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까지 6명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옮기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대안신당에 이은 제4당이 될 수 있다. 박주현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둔 채로 각각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제명 후 공당 당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경제 활력 되살리는데 전력 기울여 달라"

4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지

적하며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 간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점포 임대료 등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거론,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법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가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혁신성장, 산업강국, 디지털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소개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부처들의 노력을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